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2~10/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조론역주(선어록총서5)	승조/감산 역주	운주사
2	천천히가라숨쉬며그리고웃으며:틱낫한그가남기고간참된깨달음의노래	틱낫한/라샤니 레아 그림	담앤북스	7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관(명상을통해얻어지는자유)	수자타/하숙희	불일출판사	8	디가니까야(2)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딱돌해설서:바르도에서닦지않고해탈하는법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9	요가니드라	사라스와띠 지음	한국요가출판사
5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10	불교도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초기경전에나타난붓다의가르침	마성	민족사

책세상

'한글 뜻그림' 완성…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



화가의 한글사랑
이호신 글 글씨 그림
뜨란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0년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 남사마을로 낙향해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 현장을 꾸준히 화판에 옮긴 생활 산수화를 발표해온 이호신 화백. 그가 이번에는 오랜 세월 연구한 한글서예 이미지화 작업인 '한글 뜻그림'을 한 데 모은 책 〈화가의 한글사랑〉을 출간했다. 책에 나와 있는 '한글 뜻그림'이란 화가의 시각에서 한글서예를 표현한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인 새로운 예술양식이다.

이는 한글이 지닌 조형성과 문장을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표현한 것인데, 한글에 담긴 내용을 이미지로 극대화하고 시각적 공감을 자아내는 작업이다. '한글 뜻그림'은 이호신 화백의 화가적 감성과 모국어에 대한 인문학적 사랑서 기인한다. 이 화백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한글을 '무명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규정한 뒤 표음문자인 한글로 언어가 함축한 뜻을 표현하는 방법에 천착한 결과 마침내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 언어로 드러낸 '한글 뜻그림'을 창안했다. 그리고 이번 책은 그 모든 작업의 결실을 응축해 담아냈다. 이 작업은 우리 선조들의 언어표현이던 문장(시), 글씨(서), 그림(화)과 민화 문자도(文字圖)의 재발견인 셈이다. 기존의 한글서예나 문인화, 시화와는 또 다른 조형 방법으로서 작가는 스스로 '한글 뜻그림'으로 명명했다.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문자와 회화가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 공감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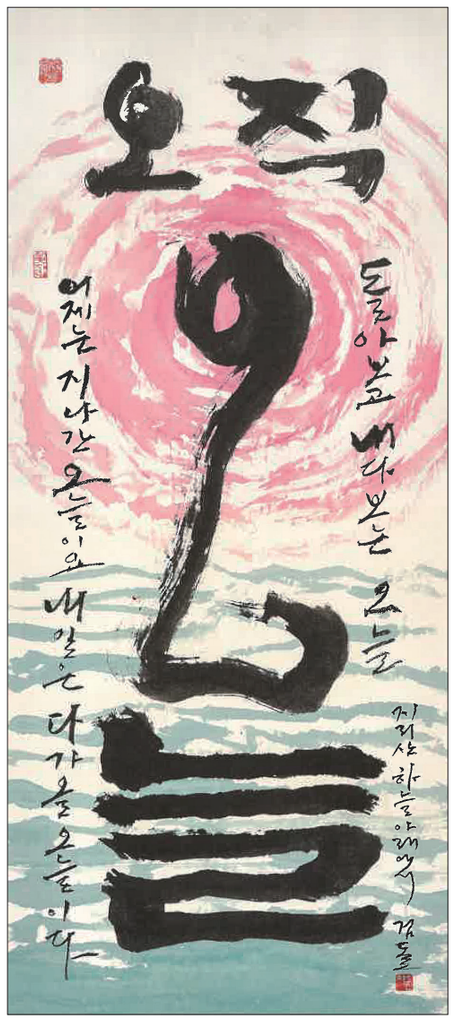
그는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을 '한글 뜻그림'에 담아 한글 창제의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 글씨체에 변화를 주거나 구성을 달리하고, 주제에 맞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다채롭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화면 구도는 종종 틀을 깨는 파격을 추구한다. 여기에 먹과 붓은 물론 화려한 색감과 크레용, 탁본 기법 등을 활용해 끝없이 일탈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의미 그 자체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공감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일면 글자에서 그림으로 회귀하는 작업이다. 글자를 넘어 필획 자체가 그림이 돼 글자가 그림의 정체로 각인된다. 예를 들어, 〈불〉은 얼핏 검은 색 글자 '불'과 그 바탕에 붉은 불이 오버랩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색 '불' 자는 이미 그림이 되어 검은 불꽃과 붉은 그림자 불꽃이 더불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다. 얼핏 보면 글자 속에 그림이 꿈틀대는 것 같다. 이호신 화백의 〈불〉은 그림 속에 글씨가 있고, 글씨 속에 그림이 있는 대표적인 한글 뜻그림이다. 〈한 잔 술 두 잔 술〉 역시 더 이상 글자와 그림의 구분이 무색하다. 술이라는 문자의 구조가 한글 서예의 필획으로 치환돼 있다. 한편 자작시구 또한 술의 문자구조와 같이 가로와 세로로 배치해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림의 일부로 녹아들게 만들었다. 〈물처럼 바람처럼〉은 가로로 긴 한지를 선택해 물길과 바람의 여백을 마련하고 글씨를 흘려 쓴 다음 물결의 푸른색과 날리는 낙엽을 그려 넣었다. 내용이 지닌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시각적 공감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눈과 귀의 언어가 교차되는 지점, 즉 시청각이 하나되는 지점에서 포착할 때 더 풍성하게 다가오고 제대로 해독된다. 그림이 글씨이고, 글씨가 그림이 되는 경지, 곧 시서화가 일체를 이룬다. 그러나 전통의 답습으로서 문인화 내지는 시서화가 아니다. 말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이전에 글씨에 담긴 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는 작가의 심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작품 〈불〉은 문자를 가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내지르듯 그리고 있다. 〈산다는 것은 꽃 소식을 듣는 일〉은 매화가 개화하는 순간을 귀로 먼저 보게 하며,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운 것〉 역시 '콸콸콸' 흐르는 지리산 계곡물의 푸른 소리를 그린다. 〈물소리에 귀 씻고〉는 폭포수가 용솟음치는 듯하다.

한편, 무심한 일곱 줄기 필획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는 〈깊은 강물은 소리가 없네〉와 〈풍경소리〉 〈강물〉 등에서 이호신 화백의 붓질은 시공의 적막을 넘나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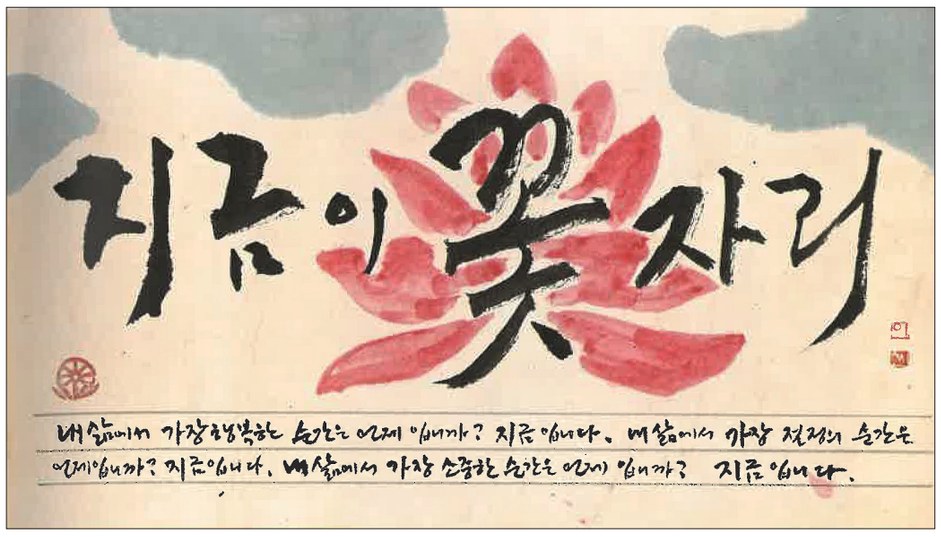
이호신 화백은 문자와 그림 이전에 재료가 가진 본래적 물성, 즉 한지의 성분과 물감의 색에 천착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인조색과 자연색을 넘나들며 먹과 색의 놀라운 조화를 이뤄낸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색으로 하나 되는 생명의 빛을 구현한다.

〈꽃〉은 붉은 노랑의 천지이고, 〈꽃에 취한 얼굴〉은 온통 홍색의 바다이다. 〈날개〉가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라면, 〈바람이 솔솔, 낙엽이 분분〉은 새 생명을 잉태한 검은 나무의 갈색노래다. 이호신 화백은 오래전부터 전통한지를 사용해 왔다. 우리 한지는 질기기로 수명이 1000년을 가는 우수한 문화유산이다. 그는 이 한지를 그냥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염료로 염색해 바탕지로 보관해두었다가 '한글 뜻그림'을 제작할 때 내용에 맞는 빛깔의 한지를 꺼내 사용한다. 한글 내용과 그림 이미지를 구상하고 나서 붓을 들기도 하고, 반대로 염색된 바탕지에 이미지를 구현하고 난 다음 글씨를 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편선지에 물들인 오색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좋아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편지 한 장을 정성껏 육필로 쓰지 않고 사물에 대한 관찰과 애정이 없이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 없다. … 조각가의 경우 좋은 재료(나무 철 등)를 우선 찾는 것이 필수요, 그림의 경우는 채색과 용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바, 서예가는 너무 단순하고 안일한 재료 선택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재료의 변화를 통해 내용과 실험의 기대가 반증되고 창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135x58.5cm, 한지에 수묵채색.



31x56.5cm, 한지에 수묵채색.

>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 한글 뜻 그림에 담아
> 한글 창제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 실천 30년 결실
> 눈으로 보는 그림서 귀로듣는 음악, 침묵까지 형상화
> 글자와 그림, 사람과 자연이 색으로 하나된 물아일체

▲작가 **이호신**은?

1957년생. 동국대 교육대학원서 미술을 전공했다. 화가 이호신(아호: 현석, 검돌, 검은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세계, 그 아름다운 시공간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진정한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림과 글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의 붓길은 오랫동안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탐사해왔다. 그중에서도 수년 전부터 우리 산하에 흩어져 있는 정겨운 마을과 그리운 사람들의 품속 깊이 스며들어가 마음의 눈으로 그려낸 그림들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진원지를 돌아보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만드는 미적 성찰이 마을 연작들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 있는 까닭이다. 겸허한 열정과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함께 지닌 이호신은 지금까지 2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의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2017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공저) 〈화가의 시골편지〉 〈지리산진경〉 〈가람진경〉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 〈남사예담촌〉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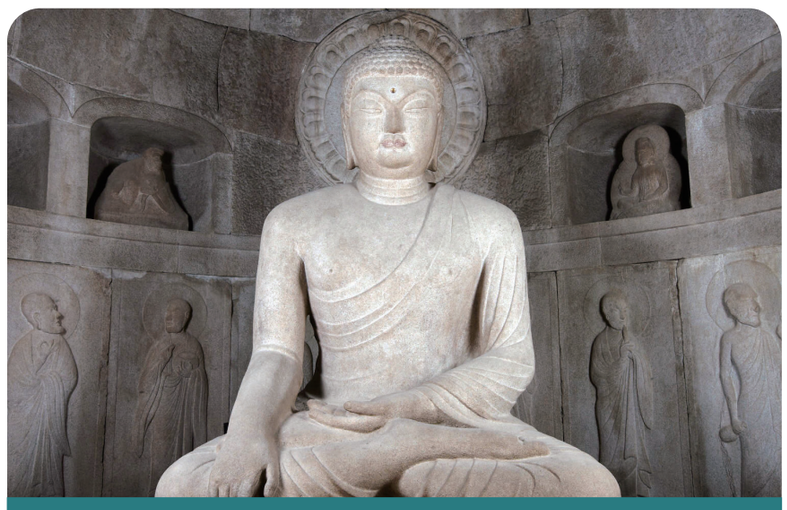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760쪽/값 38,000원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보리심을 일깨우는
대승 수행의 지침서!
게송으로 이루어진
입보리행론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쓰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산티데바 원저/하도겸 편역/국판/240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